

연구개발특구 전주기 지원이 키운 기업 경쟁력,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으로 세계 무대에서 통했다

- 북미·유럽 진출 60개사 선정…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통해 진출 지원 강화
- 지난해 본격 추진 이후 26건 실증…1,228만 달러 규모 수출·해외투자 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2일(목)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소재 60개 우수 기업을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해외 사업 설명회(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proof of concept, PoC)을 지원받게 된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특구육성 사업화 연구개발<R&BD> 등), 투자(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은 단계별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통해 축적된 기업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기반 기술(딥테크) 기업의 해외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 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지원 규모: '25년 50억 원(해외 실증<글로벌 PoC> 30억, 해외 기술사업화<글로벌 R&BD> 20억), '26년 115.5억 원(해외 실증<글로벌 PoC> 55.5억, 해외 기술사업화<글로벌 R&BD> 60억)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의 경우, 짧은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 첫째 26건의 실증(PoC)이 북미·유럽 현지 수요처와 연계되었으며, 1,228만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해외투자 유치와 외국 법인 설립 3건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2022년 창업한 지큐티코리아는 양자 감지기(양자 센서) 활용 생명 공학(바이오)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대덕특구 기업으로, 현지 실증(PoC) 연계를 통해 북미 현지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해외 진출 지원 8개월 만인 올해 1월 캐나다 양자컴퓨팅 전문기업으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2022년 창업한 대덕특구 반도체 액체 냉각 해결책(액체 냉각 솔루션) 기업 쿨마이크로는 해외 진출 지원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산호세에 외국 법인을 설립하며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1월 실리콘밸리 기반의 해외 벤처 자본(벤처캐피탈)으로부터 5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하였다.

아울러, 난치성 신경계 질환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홍릉 특구 생명 공학(바이오) 기업 뉴라클사이언스는 해외 진출 지원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미국계 해외 벤처 자본(벤처캐피탈)으로부터 5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하며, 해외 생명 공학(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의 지원 효과 및 실질적 성과를 토대로 올해 해외 진출 지원 권역을 기존 미국·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지 실증(PoC) 연계를 지원할 40개사를 올해 6월까지 추가 선정하여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지 실증과 수요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시장 다변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 해외 실증(글로벌 PoC) 지원 : ('25년) 60개 새(북미/유럽) → ('26년) 100개 새(북미/유럽/아시아)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발굴부터 사업화 연구개발(R&BD), 사업화, 투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연구개발특구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과학기술진흥과	책임자	과장	최영실 (044-202-4740)
		담당자	사무관	권현기 (044-202-4746)

□ **사업 개요**

- (목적)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협력 기반의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신규 추진('25년~)
- (기간/예산) '25년 50억원 (글로벌 PoC 30억, 글로벌 R&BD 20억)
'26년 115.5억원 (글로벌 PoC 55.5억, 글로벌 R&BD 60억)

□ **사업 내용**

- 특구기업의 현지 기술실증(PoC) 지원 및 해외클러스터 협력 기반 R&BD 지원을 통해 특구 딥테크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강화
 - (글로벌 PoC) 유망 딥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역량 확보 지원 및 현지 기술실증(PoC)을 통한 기술검증·해외진출 지원(북미/유럽/아시아)
 - * 진단·컨설팅, 현지 수요처 발굴·매칭, 실증계약·운영, 수출 및 해외투자 연계 등 지원
 - (글로벌 R&BD) 북미·유럽 혁신클러스터내 산·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특구기술의 고도화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협력 R&BD 지원

□ **주요 일정**

- (글로벌 PoC) 북미·유럽진출 희망 특구기업 발굴 및 지원대상 선정 (~3월중순), 글로벌역량 진단·컨설팅·교육 및 현지 PoC 진행(~12월)
- (글로벌 R&BD) 해외 협력대상 발굴 및 신규지원 컨소시엄 선정(~6월), 협력R&BD 신규과제 지원(7월~)